

■ (언론 동향) 2022.1.26.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윤석열 “직불금 수령액 500만원..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 70세 이상 2ha 이하 농업인에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도입
- 월 50만원씩 최대 10년 지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늘리고 비료가격 인상 차액지원과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1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했다.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슬로건으로 농업공약을 낸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겠다”며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쾌적한 그린 쉼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확대=우선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이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직불금은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직불, 고령 중소농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금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령의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해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 청년농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ha 이하를 경작하는 고령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매도·장기 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에도 식량 자급을 위한 1000㎡ 이하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료가격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최근 국제 원자재값 급등으로 상승한 비료가격을 지원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윤 후보는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을 정부가 대폭 지원해 농가 부담을 낮추겠다”며 “또한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개선해 농가들의 고용 편의를 봐주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보험, 교통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농 3만명 육성=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공공 농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영농과 농촌정착을 위해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식품부에 청년농 육성 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 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뉴타운을 조성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병성 기자 >